

안전보건공단 - 발전사, '안전한 발전소' 만들기 위해 공동 대응

-전력산업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공단”)은 국내 주요 발전사들과 전력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았다. 공단은 발전소 내 협력업체의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국내 주요 발전 4사와 7.9.(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력산업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일시: 2026. 7. 9.(목) 15:00
- 장소: 킨텍스 제2전시장 3층 305B 세미나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및 발전사* 사장(부사장)
*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이번 협약은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발전사와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발전사업은 대규모 설비와 고위험 공정이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공단의 전문 기술력과 발전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력산업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 및 수급업체 대상 안전보건체계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소속 직원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교육 지원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공종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개발 ▲안전활동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 측정 및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안전 보건 역량을 높여 전력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분야의 안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교육총괄실 교육계획부	책임자	부 장	홍광의 (052-703-0711)
		담당자	차 장	김성권 (052-703-0714)

